“종단 차원 승려 노후 복지시설 마련돼야”

수경 스님, 정책토론회서 주장

승려복지회 · 비구니회 공동주최

승려 노후 복지 미비사항 지적

종단 차원 요양시설 마련 제안

“일원화된 요양시설 · 제도 필요”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10월 23일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승려 노후 주거복지 정책토론회’에서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은 승려복지 실현을 위해 종단과 교구본사의 협력도 강조했다.

“종단의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종단 차원에서 일원화된 승려 요양시설과 제도 등의 마련을 통해 승려 노후 주거복지를 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이 10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 승려복지회와 전국비구니회가 공동주최한 ‘승려 노후 주거복지 정책토론회’에서 ‘조계종단 노후 승려주거복지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수경 스님은 총무원과 승려복지회를 비롯한 종단이 주체적으로 스님들의 노후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종헌 9조 1항에서는 “조계종 스님은 독신으로서 가족부양을 지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지만 정작 스님들의 노후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은 종단의 방임적 태도라는 게 스님의 주장이다.

스님은 “고령화시대를 맞아 종단 내에도 노령의 스님이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 제도 혹은 환경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며 “평생 출가수행자이자 종단의 일원으로서 수행과 전법에 헌신한 스님들의 노후를 종단과 승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조계종 통계(2024년 9월 기준)에 따르면 종단 소속 승려 1만1394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3438명으로 전체 30.2%에 이른다. 이것은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초과하는 수치로 승가공동체의 고령화는 이미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현재 몇몇 교구본사에서 재적 중인 노스님들에게 거주지를 제공하지만, 교구본사의 환경 변화에 따라 거주지 관리 미비 등 상황 변동의 폭이 커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수경 스님은 “교구본사 차원에서 노스님들을 위해 방사를 제공하지만 소수 인원 대상이라 폐쇄적이고, 이 때문에 주지스님 혹은 교구장 스님이 교체될 경우 노스님들의 주거복지 환경이 뒤바뀌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경 스님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종단 차원의 일원화된 승려 노후 주거복지 시설 확충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방안으로 종단의 승려 복지 방향성과 사업 재정립, 관련 법 조항에서 종단의 역할 규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승려복지회가 직접 관리하는 요양시설, 대중수행처 등을 설립해 교구본사에서 미처 수용하지 못한 스님 구제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현재 선도적인 교구본사의 사례를 참고해 종단이 승려 노후복지의 정책적 뒷받침을 일구면 노령의 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WISE캠, ‘영캠프’ 법석 연다

11월 12일 1300명 수계 법회

불교동아리 회원 직접 기획

“불교, 문화 조화된 축제로”

동국대 WISE(이하 와이즈)캠퍼스 재학생 1300명이 합동수계 받는 대규모 법석을 연다.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건학위원회(위원장 류완하)가 11월 12일 오후 3시 와이즈캠퍼스 문무관에서 ‘2024 WISE Young Camp-Festival with Buddhism’(이하 영캠프)를 개최한다.

‘영캠프’는 자승 대종사의 원력에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의 지원이 더해져 시작된 프로젝트다. 대학생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청년 불자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누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행사는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불교동아리 학생들이 ‘WISE캠퍼스 영캠프 학생기획위원단’을 만들어 기획하고 준비한 축제이다. 대학생들이 함께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불교와 페스티벌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행사는 1부 수계법회, 2부 어울림한마당, 3부 문화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수계법회는 이사장 돈관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법인 이사·감사스님, 정각원장, 교수·강사 및 학인스님 등 100여 명의 스님들이 대학생들에게 연비를 내릴 예정이다. 국악오케스트라의 공연과 더불어 장엄한 예불의식으로 펼쳐질 수계법회를 통해 1300명 대학생들은 전통불교의 가르침을 체험하고 청년 불자로 거듭나게 된다.

2부 어울림한마당에서는 학생기획위원단이 기획하는 학생들의 공연과 이벤트가 열리고, 3부 문화 공연에는 가수 하하와 뉴진 스님 디제잉 공연으로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한편, 동국대학교 와이즈캠퍼스 불교동아리들은 지난 9월 불교문화대학 ‘부루나’를 시작으로 4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을 완료했으며, 10월 30일에는 동국대 한의과대학 불교동아리 ‘심우회’가 창립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MZ불자 가수 발굴한 ‘제1회 전국사찰노래자랑’

10월 19일 화계사 설무대서…김영익 연극배우 최우수상 수상



“화계사와 함께하는 전국~사찰노래자랑~!”

선선한 가을바람 넘실대는 10월 중순, 서울 화계사(주지 우봉 스님, 조계종 기획실장)에 신나는 노래와 관객들의 박수, 함성소리가 울려 퍼졌다. 화계사가 주최하고 조계종 연예인전법단(단장 우봉 스님)이 주관하는 ‘제1회 전국사찰노래자랑’이 10월 19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열렸기 때문.〈사진〉 이번 행사는 사찰신도들 간 화합을 도모하고 젊은 세대 불자 가수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연예인전법단장 우봉 스님, 포교부장 남전 스님, 화계사 선덕 견향 스님, 총무국장 도준 스님, 교무국장 청강 스님 등 화계사 대중스님들과 임혁 연예인전법단회장, 이한규 연예인전법단장 사무총장, 장정화 연예인전법단 자문위원장 등 연예인전법단과 화계사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우봉 스님은 “오늘 화계사에서 전국사찰노래자랑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며 “노래자랑은 불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사찰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했다. 행사가 열렬한 호응 속에 원만하게 회향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남전 스님도 “포교가 잘 이루어지려면 사찰, 대중, 문화가 어우러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처음 열리는 ‘전국사찰노래자랑’이 바로 그런 자리다. 앞으로 정례·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10월 13일 화계사 사찰 신도들을 대상으로 예심이 치러졌다. 총 지원자 47명이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18명이 본선으로 진출, 오늘 무대에 서게 됐다. 특히 본선진출자 중에서는 2030 청년불자 가수들이 발굴돼 눈길을 끌었다.

최우수상(포교원장상) 수상의 영예는 가수 이승철의 ‘아마추어’를 부른 김영익(28, 연극배우) 씨가 안게 됐다. 김 씨는 “힘들고 지치는 무명시절을 이겨내고 좋은 추억을 쌓고자 지원했다”며 “오늘 성과를 밑거름 삼아 앞으로 불교를 널리 알리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민재 기자

조계사, 소통 공간 ‘베이커리 조’ 개업

10월 23일, 개업식 개최

“시대에 맞게 공간 변화”



조계사는 10월 23일 경내 관음전 건물 1층에서 ‘베이커리 조’ 개업식을 개최했다.〈사진〉 올해 5월 국숫집 승소의 영업을 종료하고 불자와 일반 시민을 위한 쉼터 공간을 고민하던 중, 보다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는 베이커리 카페를 준비하게 됐다.

베이커리 조에는 제빵과 커피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과 8명의 자원봉사자가 일한다. 이곳에서는 에스프레소와 핸드드립으로 추출한 다양한 커피, 각종 전통차와 음료, 직접 구운 크루아상 등을 맛볼 수 있다. 빵의 종류는 점차 몽블랑 빵, 스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오늘은 조계사 주지 소임을 맡은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경사스러운 날 ‘베이커리 조’ 개관식까지 더해지니 더욱 의미가 깊다”며 “시대에 맞게 국수에서 커피와 차, 빵으로 변화하게 됐다. 도반들과 담소도 나누는 편안한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이커리 조의 수익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사용된다. 김내영 기자



국화 핀 조계사서 어린이 그림 대결

조계사는 10월 20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13회 조계사 어린이 미술대회 나는 화가다’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사전 접수를 받은 5세부터 13세까지 ‘꿈나무 화가’ 어린이들이 참가했다.

주제는 ‘국화가 피어있는 조계사’와 ‘부처님과 나’. 500여 어린이들은 형형색색 국화로 옷을 갈아입은 부처님 품 안에서 실력발휘를 하며 즐거운 휴일을 만끽했다. 시상식은 11월 3일 예정돼 있다. 임은호 기자

대불청 33대 중앙회장에 이길수 전 부회장

10월 20일 대의원총회서

“자만하지 않고 임하겠다”



KYBA 대한불교청년회 제33대 중앙회장에 이길수 건축사사무소 혜연 대표〈사진〉가 선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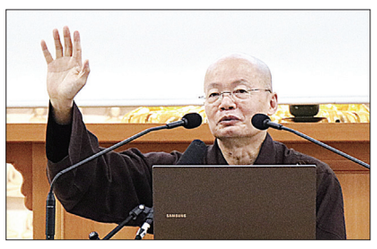
KYBA 대의원회(의장 이시우)는 10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8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길수 대표를 제33대 중앙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대의원 총원 115명 중 유자격 대의원 85명 가운데 현장에 55명이 참석, 성원됐다. 이길수 중앙회장 당선자는 찬성 52표, 반대 3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하재길 중앙선관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이길수 중앙회장 당선자는 당선 소감에서 “자만하지 않고 회장직에 임하겠다”면서 “중앙회장 자리의 힘을 나를 위해 쓰지 않겠다. 권력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대불청을 위해 그리고 법우들을 위해 쓰겠다. 지켜봐달라”고 다짐했다. 임은호 기자

“바른 수행 위해서는 ‘선지식’ 가까이해야”

10월 20일 서울 길상사 설법전서

영화 선사, 4주간 방한 회향 법문



“선화 상인께서 제게 주신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선지식(善知識)’을 가까이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위앙종의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영화 선사〈사진〉가 10월 20일 서울 길상사(주지 덕조 스님) 설법전에서 대중들에게 선지식의 중요성에 대해 설했다. 이날 법회는 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의 초청으로 열렸으며, 4주간 영화 선사의 방한법회를 회향하는 법석이기도 했다.

‘미국 위앙종의 정수’를 주제로 진행된 법문에서 영화 선사는 “실수를 피하고 본인의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선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방향을 알려주고 지켜봐줄 스승이 없다면 무엇이 바르고 그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선(禪)에 대한 가르침도 이어졌다. 영화 선사는 “선은 말과 언어가 끊긴 곳에 있다”며 “달을 보려면 손가락이 아닌 달을 직접 봐야 하는 것처럼, 선수행을 하다보면 모든 것이 언어를 넘어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역설했다.

선의 언어도단(言語道斷)은 선지식에 대한 가르침으로 연결됐다. 영화 선사는 “선지식은 언어가 아닌 ‘경험’으로 대중을 지도한다”며 “자동차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세라티 차 매장으로 직접 데려가야 한다. 선지식은 제자를 ‘말이 끝나는 지점’, 깨달음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라고 설했다.

끝으로 영화 선사는 자신이 선지식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을 도울 때를 살피라”고 조언했다. 선사는 “남을 도울 때 ‘나’의 이익보다 상대방의 이익이 더 크다면 당신은 변명의 여지없는 선지식”이라고 강조했다.

법문에 앞서 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은 “수행법이 다를 뿐 위앙종이든 조계종이든 같은 부처님 법”이라며 “영화 선사의 법문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감미롭게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재 기자

국제포교사회, 외국인 유학생 템플스테이

10월 19~20일 낙산사서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정혜스님)가 10월 19~20일 양일간 양양 낙산사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유학생들에게 한국불교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템플스테이에는 14개국 23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사찰 예절 △스님과의 차담 △108배 △염주 만들기 △소원지 작성하기 △대종 치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김민재 기자